

임시정부와 여성독립운동가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문영숙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1. 들어가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6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백범의 묘소는 용산구 효창원에 모셔져 있다. 효창원엔 임정 요인을 비롯하여 윤봉길의사, 백정기 의사, 이봉창 의사가 계신 삼의사 묘와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는 그야말로 임시정부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곳에 있는 백범 기념관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한 대로 3.1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임시정부는 27년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부터 총칭까지 중일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내야 했다. 남성들은 독립운동의 전면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투할 때 여성들은 무엇을 했을까.

임시의정원의 첫 의원을 맡았고 애국부인회를 조직해 활동했던 김마리아와 황애덕, 임정 살림을 도맡았던 애국지사 정정화, 백범의 어머니 궤략원 여사와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남성보다도 더 용감하게 살았던 애국지사 권기옥과 여자 안중근이라 칭했던 남자현, 박차정과 여자광복군 지복영과 오광심, 이월봉지사도 있고 어디 그 뿐 인가. 러시아에서는 마지막 열세 발자국을 걷고 죽겠다고 한 김 알렉산드라 스파크비치는 아무르강의 영혼이 되었다.

임시정부를 도운 중국인 여성과 미국인 여성도 있다. 조지 애쉬모어 피치 부부는 윤봉길 상하이 의거 후 쫓기는 김구와 부부처럼 행동했고 자성에서

* 아동청소년 역사소설 작가. 충남 서산 출생. 역사를 소재로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역사를 읽기 쉽게 쓰는 디아스포라 작가. 현재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광복회 역사강연으로 연해주 독립운동가와 최재형> 강연과 저서 '독립운동가 최재형', '안중근의 마지막 유언',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 '에네켄 아이들', 강제징용과 위안부소설 '검은 바다와 '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가 영어로 번역되었음. 그 외 20여 권의 저서를 바탕으로 작가 인문학 강연을 하고 있음.

위기를 맞은 김구를 갓 출산한 산모의 몸으로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킨 주가에도 있다. 심지어 김구와 가짜부부 생활을 한 주애보. 이렇듯 임시정부가 27년 동안 중국에서 머물 때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와 여성 조력자들이 임시정부를 지켜냈다. 이 글에서는 임시정부가 광복을 맞기까지 남자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대강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임시정부와 함께 한 여성독립운동가들

❶ 임시정부의 안주인 정정화

정정화는 1920년 상해로 망명하여 1946년 귀국하기까지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임정요인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무려 27년간이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사지를 넘나들며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한 정정화는 1920년, 1921년, 1922년, 1924년, 1929년, 1931년까지 무려 여섯 번이나 목숨을 내놓고 감시가 심한 국경을 넘나들며 독립자금을 날랐다. 서울에서 의주, 봉천, 천진, 남경, 상해까지 연이어 열차를 갈아타면서 꼬박 열흘 이상을 달려 상해에 닿은 것은 1월 중순 이른 아침이었다. 그러나 상해에 도착하여 재회의 기쁨도 맛보기 전에 선생은 다시 국내로 밀파되었다. 당시 임정 법무총장으로 있던 예관 신규식(申圭植)과 시아버님 김가진의 지시에 따라 선생은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920년 3월 초순 상해를 출발하여 국내로 향했다. 1919년 7월 임시정부의 비밀 지방 행정 및 연락 조직인 연통제를 따랐는데 상해에서 만주 안동현까지는 이룡양행(怡隆洋行)의 배편을 이용했다. 당시 안동에는 우강 최석순이 임정의 연락책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일경으로 위장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는데, 선생은 그의 누이동생으로 가장해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서울로 가서 즉시 세브란스 병원 관사에 있는 신필호를 찾아갔다. 서울에서 유명했던 젊은 산부인과 의사 신필호는 신규식의 장조카였다. 선생은 20일 가량 머물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한 뒤, 그 돈을 전대에 숨기고 4월 초 상해로 귀환했다. 이어 1921년 늦은 봄 두 번째로 국내로 들어와 곧바로 예산의 친정으로 내려가 친정아버지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때는 개성 우사 김규식의 이질(姨姪)인 서재현을 대동하고 상해로 귀환했다. 이듬해 6월 중순 선생은 세 번째로 상해에서 배편으로 산동반도의 청도를 거쳐 안동현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동행인 이욱(李昱)이 워낙 자신 있다고 장담하는 바람에 열차가 아니라 인력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압록강 철교 위에서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신의주 경찰서로 끌려 가 이틀 동안 심문을 받은 끝에 신분이 탄로 나서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 나왔다. 그때 시아버지 김가진의 부음을 받았다. 그 해 7월 장례식 참석을 명분으로 시동생 김용한을 대동하고 다시 상해로 갔다.

정정화는 10월 네 번째로 국내로 잠입하여 독립운동 자금 모금 활동을 하다가 이듬해 7월 상해로 귀환하였다. 1924년 12월에도 선생은 다섯 번째로 국내로 들어와 이듬해 6월까지 약 6개월간 주로 예산의 친정에서 생활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다시 상해로 돌아왔다.

그 후 선생은 임시정부의 안주인 노릇을 하며 한국 애국부인회의 각종 매체를 통해 국내외 동포 여성들에게 민족적 각성을 촉구했다. 또 여성들에게 독립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의연금품을 모아 무력항쟁을 준

비하는 광복군을 위문하는 등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갔다. 아울러 연합군 측으로부터 인계받은 동포여성들을 교육하여 독립운동에 참여케 하고, 해외 각지의 한인 여성단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체제를 확대 강화하면서 독립운동의 활동기반을 갖추어 갔다. 1940년 5월 민족진영의 3당을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9월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선생은 남편 김의한과 더불어 한국독립당의 창립 당원으로 활약하고 같은 해 6월 한국독립당의 여성 조직으로 한국여성동맹이 기강에서 창립될 때, 간사로 선출되었다. 명실공히 임정의 안주인으로 1941년 1월 기강에서 중경 근처의 토교로 임정 가족들이 이사할 때도 중심역할을 했다, 특히 1940년 9월 중경으로 옮겨오면서 민족의 모든 역량을 대일 항전에 결집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자, 1943년 2월 각 정파의 부인들 또한 중경에서 한국애국부인회 재건대회를 개최하여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생은 훈련부 주임, 김순애는 주석, 박순희는 부주석, 그 밖에 최소정·김운택·연미당·강영파·권기옥 등이 각 부주임으로 선출되었다. 선생이 집행부의 일원을 맡은 재건 한국애국부인회는 국내외 전민족해방운동과 남녀 평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 신공화국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분투하자는 강령을 선포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국내외 동포 여성들에게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며 독립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의연금품을 모아 무력항쟁을 준비하는 광복군을 위문하는 등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갔다.

또한 연합군측으로부터 인계 받은 동포여성들을 교육하여 독립운동에 참여케 하고, 해외 각지의 한

인 여성단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백범 김구는 물론 석오 이동녕(李東寧), 성재 이시영(李始榮) 등 임정 요인들 가운데 선생이 지어준 밥을 먹지 않은 분이 없었고, 임정의 가재도구 가운데 선생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임정 요인들의 고달픈 망명생활은 선생이 있음으로써 위안이 되었고, 나아가 27년간이라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임시정부의 역사도 선생이 있음으로써 가능했다.

② 평남도청과 평남경찰부 폭탄투척 사건의 안경신

안경신은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2년을 수료한 후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정부의 국내 기관이었던 대한애국부인회에서 활동하였다. 광복군 총영에서는 서울, 평양, 신의주 등 세 도시에서 폭탄거사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대원 13명을 선발해서 3개 대로 나누어 밀파하였다. 결사대 제1대는 김영철, 김성택, 김최명, 제2대는 장덕진, 박태열, 문일민, 우덕선, 안경신, 제3대는 이학필, 임용일, 김응식 등이었다. 제1대는 서울, 제2대는 평양, 제3대는 선천과 신의주 방면을 맡았다. 이중에서 안경신이 속해 있던 제2대만 폭탄 거사에 성공하였다.

안경신은 독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고 무력적인 투쟁만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안경신은 비록 몸은 작았으나 외모보다는 내면의 세계가 알차고 강인한 투쟁정신으로 일관했다. 안경신의 과감한 폭탄거사투쟁은 한국여성의 강력한 독립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여자 광복군 오광심, 김정숙, 지복영, 조순옥, 민영주, 신순호

한국광복군 청년공작대원은 34명이었으며 이중 여성대원은 지복영 선생과 오광심, 오희영, 오희옥, 방순희, 김병인, 김효숙, 신순호, 연미당, 조계림, 이국영 등이었다. 오광심은 조선혁명당원이자 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의 부인이었으며, 오희영과 오희옥은 오광선 장군의 장녀와 차녀였다. 방순희는 임정의정원 의원을 지냈으며, 광복군 김관오의 부인이었다. 김병인은 광복군 총사령부 제1지대장 이준식의 부인, 김효숙은 김봉준의 장녀이면서 송면수의 부인이었다. 신순호는 독립운동가 신건식의 딸이며, 연미당은 오항섭의 부인이다. 조계림은 조소앙 딸이며, 이국영은 민영구의 부인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30대까지였다.

청년공작대는 주로 한국과 중국인들의 항일의식 고양을 위한 선전활동에 주력하였다. 연극은 한국부인들과 중국 여성들이 맡아서 하였다. 지복영도 미혼여성이라 합창 정도만 했다.

그 후 1940년 재창설된 한국광복군에서는 여성들도 한국광복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자 광복군으로 오광심, 김정숙, 지복영, 조순옥, 민영주, 신순호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주로 사령부의 비서 사무 및 선전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였고 1940년 11월 17일 실제적인 항일 전투를 하기 위해 중경을 떠나 29일 전선이 가까운 서안으로 이동하여 광복군 서안총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이 때 지복영 선생은 오광심, 조순옥과 함께 서안으로 갔다. 여성들이 여성광복군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임시정부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조순옥은 독립운동가 조시원의 딸로 1923년 출

생하였다. 조시원은 조소앙의 동생으로 가족 전원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가족이었다. 조시원은 1920년 상해로 망명, 1927년 金武亭 등과 중국본부 한인청년총동맹을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펼쳤다. 조순옥은 아버지 조시원이 상해로 망명한 지 3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족운동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3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 계급등 일체 평등함, 5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유함이라고 선포하여 남녀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임시정부 헌장에 남녀평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한국여성들이 노력한 결과였다.

④ 최초의 여자비행사 권기옥 애국지사

한국인 최초 여성비행사 권기옥은 여성들 뿐 만 아니라 당시 한국인들의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권기옥은 독립전쟁을 위한 군관 양성을 추진하고 있던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 1923년 4월에 중국의 변방인 운남육군항공학교(雲南陸軍航空學校)에 제1기생으로 입학하였다.

운남육군항공학교에는 프랑스에서 구입한 20대의 비행기에 2명의 프랑스 교관이 초빙되어 학생들에게 맹훈련을 하였다. 권기옥은 기초이론과 지상 실습교육을 끝낸 후 프랑스제 꼬드롱 쌍엽(雙葉) 훈련기를 처음 타보았다. 여류 조종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그것이 한국 여학생이고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망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일본 관헌은 한국인 청년을 매수하여 암살을 지시했다.

이 사실을 안 권기옥은 이영무, 장지일 등과 함께 그 청년을 공동묘지로 유인하여 사살하였다. 그 후 일본 영사관 측에서는 길거리 어디서든 권기옥을 만나면 사살하겠다고 통보하였다.

1925년 3월 권기옥은 운남육군항공학교의 제1기 졸업생이 되었다. 이어 1927년에 장개석(蔣介石) 총통이 북벌(北伐)을 할 때, 동로항공사령부(東路航空司令部)에 최용덕과 함께 참여하는 등 10여년 동안 중국 공군에서 복무하였다.

첫 출전에서 계급이 빨리 올라 소령, 중령에까지 올랐다가 공군을 개편할 때 대령이 되었다. 중국의 혁명공군 초창기에 공군을 선전하는 임무를 가졌으며, 기금을 모으고 선전을 위해 중국인 여자 혁명가 한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 중국을 일주하기도 하였다.

선생은 총 7,000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군인 신분으로 그 군대의 훈련 과정으로 비행 과정만을 마쳤기 때문에 비행사로서 자격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⑤ 애국부인회를 함께 조직한 김마리아와 황애덕 애국지사

3.1만세 운동으로 일경에 잡혀 옥살이를 한 김마리아는 1920년 5월22일에 병보석으로 출감했다. 출감 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과감하게 망명을 계획했다. 1921년 7월 10일 인천에서 배편으로 탈출해 1개월 후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 도착했다.

김마리아는 상하이에서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난징대학에 입학했다. 상하이의 대한애국부인회에도 참여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김구와 함께 황해도 대의원으로서 선출되었다. 최초의

여성의원이었다.

그러나 정치는 역시 녹록지 않았다. 임시정부의 향방을 놓고 독립운동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1923년 1월에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도 임시정부를 개조하자는 입장과 새로운 독립운동 영도기관을 세우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김마리아는 대한애국부인회 대표로 참석해 '한국인의 지지를 받는 정부를 말살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조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대표회의는 아무런 합의도 끌어내지 못한 채 해산되었다.

김마리아는 국민대표회의가 무산되자 큰 실망을 안고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1923년 6월 상하이에 서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김마리아는 하와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1년 넘게 진학 공부에 힘쓴 끝에 파크대학 3학년에 편입했다. 배우겠다는 일념에는 끝이 없었다. 대학 졸업 후 시카고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연구했고 다시 컬럼비아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신학도 공부했다.

김마리아는 온갖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고학을 했다. 다른 사람에게 유학을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만큼 고된 세월이었다. 그럼에도 김마리아는 뉴욕에서 미국 유학생들과 함께 여성단체인 근화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활약했다.

⑥ 백범의 어머니 박낙원여사와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1910년 일제에 의하여 국권이 피탈되고, 남편이 숨을 거두면서 집안 형편이 어렵게 되자 박낙원 여사는 삶바느질과 남의 집 가정부 노릇을 하며 김구를 키웠다. 아들 내외가 환갑잔치를 베풀려 하였으

나 시국의 어려움을 들어 거절하였다.

1922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 있다가 1926년 귀국하였다. 1934년 다시 중국으로 가서 김구를 격려하고 아들이 마련한 생일비용은 전액 무기구입자금으로 돌렸으며 찬거리를 줄여 군자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82세로 충칭에서 순국하였으며 정부에서는 1992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조마리아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안태훈과의 사이에 안중근(1879-1910), 안성녀(1881-1954), 안정근(1884-1949), 안공근(1889-1939) 등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장남 안중근은 중국 하얼빈역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고, 차남 안정근은 북만주에 난립한 독립군단을 통합시켜 청산리전투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삼남 안공근은 백범 김구의 한인애국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윤봉길과 이봉창의 항일의거를 성사시켰고, 딸 안성녀는 안중근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하여 손수 독립군의 군복을 만들었다. 실로 조마리아는 자식들을 모두 독립운동의 제단에 바친 장한 어머니였다.

안중근은 삼흥학교와 돈의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부 안인수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활용했는데, 이는 부친 안태훈 사후 집안의 어른이었던 조마리아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안중근이 국채보상운동에 매진하고 있을 때 모친 조마리아도 이에 적극 동참했다. 1907년 5월 조마리아는 ‘삼화향패물폐지부인회’의 제2차 의연활동에서 은장도, 은가락지, 은귀걸이 등 20원 상당의 은제품을 납부하였다.

1907년 7월 안중근은 독립운동을 위해 고국을 떠나고자 돈의학교 교장직을 사직하고 모친인 조마

리아에게 작별을 고했다. 이때 조마리아는 “집안일은 생각지 말고 최후까지 남자답게 싸우라”는 천금같은 격려를 해주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중국 하얼빈 역에서 한국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남겨진 안중근의 가족들은 일제의 혹독한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조마리아는 평양으로 가 안병찬(安秉瓚) 변호사에게 아들의 변호를 요청했다. 이때 평양 헌병대와 경찰서는 헌병과 경관을 파견하여 조마리아를 추궁하였다. 그러나 조마리아는 태연자약한 태도로 아들 안중근이 러일전쟁 당시 밤낮으로 국사를 근심하였고, 국채보상운동 당시 온 집안사람들에게 국채보상 의연금을 내게 하였고, 평소 가내 생활에서 매사에 정당주의를 모색했던 진실한 애국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일제의 추궁을 반박하였다. 아울러 조마리아는 1910년 2월 14일 일제가 안중근에게 사형을 언도하자 분노를 표하며 “이토가 많은 한국인을 죽였으니, 이토 한 사람을 죽인 것이 무슨 죄냐, 일본재판소가 외국인 변호사를 거절한 것은 무지의 극치이다” 며 일제의 안중근 재판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조마리아는 죽음을 앞둔 안중근을 면회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당차고 의기로운 어머니였지만, 죽음을 앞둔 아들을 차마 만나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마리아는 휘순감옥으로 형을 면회하러 가는 아들들에게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刑)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라는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고 한다.

또한 안병찬 변호사를 통해서 “네가 국가를 위하

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어도 오히려 영광이나 우리 모자가 현세에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조마리아는 안중근보다 보름 늦게 태어난 안중근의 사촌동생 안명근(安明根)에게 흰색 명주 수의를 보내 안중근이 이 옷을 입고 최후를 맞이하도록 하였다.

1910년 5월 이후 조마리아는 안중근의 장녀이자 자신의 손녀딸 안현생을 명동성당 수녀원의 프랑스인 수녀에게 맡긴 뒤 자신은 아들을 따라 연해주로 망명하였다. 연해주 생활과 독립운동 지원 활동 중 1910년 5월 조마리아는 정근 혹은 공근의 가족과 함께 안중근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로 이동했다. 조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안중근의 유족은 그 해 겨울을 크라스키노에서 보냈다. 안중근이 순국한 직후 조직된 안중근유족구제공동회가 모금한 기금이 크라스키노의 한인지도자 최재형의 손을 거쳐 안중근 유족에게 전해졌다. 조마리아를 비롯한 안중근유족은 안창호(安昌浩)의 도움 하에 크라스키노를 거쳐 1911년 4월 동청철도 동부선상의 목릉(물린) 팔면통에 정착하였다. 이곳은 서북출신들이 많이 살고, 미간지가 넓은 곳이었다. 안정근은 이곳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안공근은 형의 지원으로 러시아수도로 가서 러시아어를 공부하였다.

독립신문 1920년 1월 30일 자에 의하면, “안중근 의사의 모친은 해외에 온 이래 거의 쉬는 날이 없이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톡으로, 서쪽으로는 바이칼호수에 이르기까지 분주하여 동포를 각성시키는 사업에 종사하였다”고 하였다.

1919년 3·1운동의 결과 국내외 각지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아들들이 임정의 요인으로 활약하는 동안, 조마리아는 니콜리스크에 머물렀다. 그녀는

1922년 4월 니콜리스크에서 동포들의 환대를 받으며 회갑잔치를 치렀으며, 이후 상해로 이주하여 다시금 아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1924년 2월 안정근이 처자를 데리고 안창호를 따라 북경 근처 해전 농장으로 이주하여 농장 개척을 통한 독립운동기지 건설운동에 착수함에 따라 조마리아는 안정근·안공근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상해에서 조마리아는 자기보다 세 살 위인 백범 김구의 모친 곽낙원(郭樂園)과 동기간처럼 지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일찍이 18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태훈은 동학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관군의 추격을 받던 김구와 그 부모를 자신의 거처인 청계동으로 초빙하여 보호해 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조마리아와 곽낙원이 친분을 쌓았고, 더불어 안중근유족과 김구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독립운동가 정정화는 조마리아에 대해 “너그러우면서도 대의에 밝은 분이였다”고 회고하였다.

⑦ 여자 안중근이라 불린 애국지사 남자현

남자현의 남편 김씨는 일제의 만행이 점차 극성을 부리자 1896년 여사에게 나라가 망해 가는데 어찌 집에 홀로 있을 것인가. 지하에서 다시 보자며 결사보국(決死報國)을 결심하고 영양의병장(英陽義兵將) 김도현(金道鉉)의 진에서 왜군과 전투 중 전사하였다.

남자현의 나이 46세에 3·1운동이 일어나자 항일 구국하는 길만이 남편의 원수를 갚는 길임을 깨닫고 3월 9일에 아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중국 요녕성 통화현(通化縣)으로 이주해 서로군정서에 가입, 군사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북만주 일대에 농촌을 누비며 12개의 교회를 건립하였으며 여성계몽에도 힘써 10여 개의 여자교육회를 설립하

여 여권신장과 자질향상에 주력하였다.

망명생활 6년을 맞은 1925년에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을 주살하기 위해 채찬(蔡燦) 등과 함께 국내에 잠입, 거사를 추진하였으나 삼엄한 경계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했다.

1927년 봄 상해 임시정부 요인인 안창호 선생이 길림 조양문(吉林朝陽門) 밖에서 정의부(正義府) 중앙간부와 각 운동단체 간부, 지방유지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석주(羅錫疇) 의사 추도회 겸 민족장래에 대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자 일제는 중국 헌병사령관을 협박하여 안창호, 김동삼 선생 등 3백 명을 체포하게 하고 주요 간부급 50인의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였다. 당시 여사는 투옥 중인 안창호 선생 등 많은 애국지사들이 석방될 때까지 정성껏 옥바라지를 했으며 중국은 우리의 항의에 따라 일본의 요구를 무시하고 체포한 인사들을 보석으로 석방하였다.

1931년 9월 일제는 소위 만주사변을 일으켜 요녕성 뿐만 아니라 길림성에까지 침략의 손길을 뻗치자, 아무도 김동삼 선생과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사는 그의 친척으로 위장, 면회를 허가받고 연락책 역할을 거뜬히 해내었다. 김동삼 선생의 지시내용을 동지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그가 국내에 호송될 때 구출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나 동지들의 행동지연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1932년 9월 국제연맹조사단이 침략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하얼빈에 파견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일제의 만행을 조사단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원손 무명지 2절을 잘라 흰천에다 조선독립원(朝鮮獨立願)이라는 혈서를 쓴 뒤 잘린 손가락 마디와 함께 조사단에 전달했다. 1933년 초 여사는 동지 이춘기(李春基) 등과 소위 만주국 건국일인 3월 1일 행사에 참

석할 예정인 주만주국 일본전권대사 무등신의(武藤信義)를 제거하기로 하고 2월 29일 거지로 변장, 권총 1정과 탄환, 폭탄 등을 몸에 숨기고 하얼빈에서 장춘(당시 新京)으로 가기 위해 떠났다. 그러나 하얼빈 교외 정양가(正陽街)를 지나던 중, 미행하던 일본 영사관 소속 형사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일편단심으로 14년간 동분서주하던 여사는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영사관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여사는 1933년 8월 마침내 죽기로 결심하고 옥중에서 15일 동안의 단식투쟁을 벌였으나 6개월간의 혹독한 고문과 옥중 생활로 사경에 이르게 되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일경은 보석으로 석방하였는데 적십자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시 하얼빈에 있는 조모 씨(趙某氏) 여관으로 옮겼으나 임종이 다가오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여사는 유복자인 독자 영달(英達)에게 중국화폐 248원을 내놓은 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독립축하금으로 이 돈을 회사하라고 유언하였다

⑧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애국지사 방순희

당시로서는 드물게 여성운동가로 이름을 떨친 방순희 선생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으로 일제의 경계가 극심해지고 친러 공산주의 인물로 분류되면서 일거수일투족 감시대상이 되어 국내에서의 활동은 불가능했다.

방순희는 만주를 경유하여 상해로 탈출하였다. 1931년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일제에 검거되어 신의주 형무소에 복역 중 병보석을 기화로 탈출하여 상해로 온 현익철(玄益哲, 1890년~1938.5.7.)과 결혼하였다.

남목청(楠木廳)에서 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한국국민당 3당의 대표들이 3당 통일문제를 협의키 위하

여 5월 6일에 조선혁명당 당부(黨部)인 楠木廳에서 선생의 부군인 현익철과 김구, 유동열, 지청천 등이 통일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 갑자기 난입한 이운한(李雲漢)이 권총을 난사하여 제1발에 김구가 중상을 입었고, 제2발에 현익철이, 제3발에 유동열이, 제4발에 지청천이 맞았다. 갑작스런 총상을 입고 상아(湘雅)병원에 급송되었으나 남편 현익철이 급사했다.

방순희는 1939년 10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사천성 기강현 임강가(四川省 綦江縣 臨江街) 43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임시회의정원 제31회 정기의회에서 함경도의원 가운데 한사람으로서 선출되었다. 이때 방순희 선생을 비롯한 18인이 새로이 의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재적의원 총 33인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여성들도 한국독립당에 입당하여 남성과 동등하게 당당히 한국독립당 당원으로서 중국과 연계한 통일전선 운동에 뛰어들었으며, 조국 독립과 민족해방의 대열에 참여하였다. 선생은 주미 대표부 대표권 문제, 광복군 창설, 대일·대독 선전포고 및 조소앙의 건국강령채택문제 등 입법 활동과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1939년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마·영·소·중 등 연합국을 상대로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활동에 들어갔다. 각 정부를 상대로 대표를 파견했을 때, 방 선생은 對 소련대표로 선임되어 중경(重慶)에 있는 소련대사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것은 선생이 러시아 사정에 능통하고 러시아어가 유창했기 때문이었다. 방순희는 1942년까지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활약했으며, 해방 이후 1945년 9월까지 함경도 대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들 여성들이 목표하는 대한독립과 민족해방 완

성의 방향은 남녀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제 분야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민주주의 공화국' 건설에 있었다. 한국애국부인회가 채택한 7개 항의 강령에서 이 같은 목표를 뚜렷히 밝히고 있다.

1. 국내외 부녀를 총 단결하여 전민족해방운동 및 남자와 일률 평등한 권리와 지위를 향유하는 민주주의 신공화국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공동 분투하기로 함.
2. 혁명적 애국 부녀를 조직 동원하여 국내외 전체 부녀동포의 각성과 단결을 축성하며, 나아가 전민족의 총 단결과 총동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함.
3. 전민족해방운동을 총영도하는 혁명적 권력구조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옹호함.
4. 부녀의 정치·경제·교육·사회상 권리 및 지위 평등을 획득하기에 적극 분투하기로 함.
5. 부인의 정치·경제·지식의 보급 향상과 문맹퇴치 및 문화수준의 제고와 특히 아동 보육 사업에 노력함.
6. 직업상 부녀의 권리 및 지위의 남녀평등과 특별대우 향유의 획득에 노력함.
7. 전 세계 반파시스트 부녀의 국제적 단결을 공고히 하여 전 세계 부녀의 해방과 전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동 분투하기로 함.

이제 여성들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새로운 국가건설의 주역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방순희 선생은 1945년 9월, 애국부인회 회원들과 함께 중국군으로부터 인계받은 한국 출신 위안부

여성들을 돌봐주고 교육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사지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여성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리고 민족혼을 다시 불어 넣어 주는 교육을 전담한 것이다. 한국 출신 23명의 위안부 여성들은 주로 운남성 남평(拉孟), 통칭 송산(松山)과 등월(騰越)지역에 개설된 일본군 위안소에서 탈출하여 사천성 곤명(四川省 昆明)에 있는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1945년 9월,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인계되었다. 일제가 침략전쟁 중 전선에 개설한 위안소에서 살아남아 자유의 몸이 된 여성들은 임시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광복군과 함께 1946년 3월,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⑨ 한국혁명여성창립동맹을 발족한 애국지사 연미당 선생

연미당 선생의 부친 연병환은 북간도 청년들이 1919년 3월 3일 만세운동을 전개하자 배후에서 이를 지원하다 체포되어 2개월간의 옥고를 치른 후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립학교인 인성학교(人成學校)를 졸업한 선생은 1927년 7월 청년 독립운동가 엄항섭과 결혼했다. 이후 선생은 남편 엄항섭을 내조하며, 자녀들의 교육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독립운동가를 남편으로 둔 여성으로 살면서 독립투사로서의 삶도 요구받았다.

1927년 11월 상해에서 결성된 중국본부 한인청년동맹에 참여하기 시작한 선생은 상해 여자청년동맹에서도 활동했다. 1936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과 재건 한국독립당 당원으로도 활동했다.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 정착하자 항일과 독립을 위해 여성들을 결집하고자 한국 혁명여성 창립동맹을 발족하고 애국부인회를

재건했다.

특히, 선생은 중경 방송국에서 일본군 소속 한인 사병들을 광복군으로 전향시키기 위한 반일선전 활동을 전개해 갔다. 1946년 6월 3일 한국으로 환국했다. 선생이 해방 이후 즉시 환국하지 못한 이유는 중국에 있는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해방 이후 엄항섭의 내조에 힘을 쏟던 선생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남편이 납북되어 생이별을 해야만 했다.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해와 증폭으로 힘겨운 세월을 보냈던 선생은 1981년 1월 1일 별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연미당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⑩ 여성교육에 힘쓴 애국지사 조신성

조신성(趙信聖) 선생은 1873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한씨의 뱃속에 석 달쯤 있었을 때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고, 9세 되던 해에는 어머니마저 독사에 물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후 고모와 함께 살다가 16세 되던 해에 당시의 풍습대로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을 하였다. 결혼생활 6년 만에 방탕한 남편은 가산을 탕진한 후 아편을 먹고 자살해 버렸다.

선생은 22세에 과부가 되었다. 남편이 자살한 이후 선생은 1897년 평북 의주읍 교회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여성들 중에서는 과부들이 많았다.

선생은 24세 되던 해에 서울로 와서 이화학당과 상동 소재 교원양성소를 졸업 후 같은 지역의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 후 28세 되던 해부터 6년 동안 이화학당 사감으로 재직하였다.

그는 이와 동시에 창덕궁 방을 한 칸 빌려 이준과 함께 한국 최초의 조선부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

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선생은 많은 민족운동가들과 만났다.

선생이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였으며, 그 외 서북지방 출신의 민족운동가들이었다. 1934년 <신가정>의 한 기자가 선생에게 여성운동을 시작하실 때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하자 “내가 하숙하고 있을 때 같이 등을 대고 일하던 이가 도산 안창호였고 그밖에 많은 남자 동지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 때 부인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조직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후 선생은 자신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 유학을 결심한다. 그의 나이 34세였다. 선생은 일본 간다(神田) 성경학교를 졸업한 후 요코하마(横浜) 성경여학교 고등과에 다니게 되나, 갑작스러운 신경쇠약으로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귀국하게 된다. 귀국 후에도 계속 그는 교육사업에 매진하였다. 귀국하자마자 부산 규범여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1910년 사직하고 평양으로 가서 평양 진명여학교 교장직을 맡아서 활동하였다.

평양 진명여학교는 도산 안창호의 주도에 의해 설립된 학교였다. 도산은 여성교육의 필요를 절감하고 진명여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평양 명륜당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 도산은 평양의 기생들과 기생학교 학생들을 대동강 놀이 배에 태우고 애국의식을 일깨우는 연설을 몇 차례에 걸쳐 행하였다. 이에 감동받은 기생 중에서 10여 명이 학교에 입학하여 학생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명여학교는 점차 번창했으나 국권을 상실함으로써 도산의 해외 망명과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던 평양부인회 회원들의 탈퇴로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이 진명여학교를 책임지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생은

각고의 노력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다시금 번창하게 만든다. <매일신보>에서는 1911년 4월부터 선생이 학생모집에 주야로 힘쓴 결과 진명여학교 설립 6년 만에 학생이 100여명에 달했다면서 그를 높이 평가한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무렵 선생은 비밀사령을 받고 북경으로 떠나게 된다. 북경에서 정확히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기독교 민족주의자들과 연계를 맺고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선생은 북경을 다녀 온 후 1919년 11월 만주 관전현에서 조직된 대한독립청년단 연합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맹산독립단을 조직하여 활동했다. 항일 무장투쟁과 군자금 모집이 선생의 독립단의 주요 활동 내용이었고, 구성원은 19여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1934년 <신가정>의 한 기자가 직접 운동을 실행하시는 동안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가슴에다 육혈포, 탄환, 다이너마이트를 품고 시시로 변장을 해가며 깊은 산속을 며칠씩 헤매고 생식을 해가면서 고생을 하고 (...) 주막에서 순검에게 잡혀 가지고는 격투하거나, 오도가도 못하고 끼니를 굶어가며 산속에서 며칠씩 숨어 있었다 라고 대답했다.

독립단 활동 중 선생은 일경에게 체포되어 평양 지방법원에서 6개월 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리고 출옥 후 선생은 다시 교육운동에 매진하였다. 그는 평원군 한천으로 가서 사숙을 세워 어린이들을 가르쳤으며, 대동군 대평에서 취명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선생이 여성단체운동을 시작한 것은 1927년 사회주의 여성운동세력과 민족주의운동세력이 힘을 합쳐 근우회를 조직하면서부터였다. 선생은 처음부

터 근우회 본부에서 활동하지 않았으며, 평양지회에서 활동하였다. 근우회 평양지회는 선생을 비롯한 박현숙, 박승일, 김선경, 김경옥, 백덕수 등에 의해 1928년 1월 30일에 조직되었다.

근우회 평양지회는 근우회 회관을 설립하고, 여성들에게 경제 의식을 일깨우고 실업여성의 직업 확보를 위한 실행사업으로 속옷공장 설립을 기획하는 등 추상적인 여성운동이 아닌 현실적인 여성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하였다. 1930년경 근우회 본부가 해체된 이후에도 선생은 평양지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펼쳤다. 근우회 야학운동 활동에 힘썼고 본인이 예전부터 운영하던 취명학교도 동시에 운영하였다.

또한 1932년 6월 25일에는 무산아동을 위한 학교인 고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교육활동에 더욱 매진하였다. 그 후 선생은 1945년 해방이 되자 3개월 만에 월남을 하게 된다. 당시 그의 나이 72세였다. 북한지역에서 김일성 정권 장악 이후 활동이 어려워진 선생은 남한을 선택했고 1948년 대한부인회 부총재로 활동하였다.

선생은 1953년 5월 5일 부산의 신망애 양로원에서 80여생을 마감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3. 맺음말

지금까지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살펴보았다. 위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도 많이 있지만 지면의 한계로 다 언급할 수가 없어서 대강의 여성들만 조명해 보았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인 관습에서 여성들은 앞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았고 특히 모든 일은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다 보니 역사에서 소외된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광복 후에도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특히 여성들이 스스로 나서서 공적을 내세우지 못한 점도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숫자가 적은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임시정부시절 남자들의 독립운동의 이면에는 당연히 내조의 차원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컸을 것인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도 있어서 많은 수가 알려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밝혀진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여성의 비중이 2%밖에 되지 않는 것은 많은 부분 아쉬움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성독립운동가협회 심옥주 회장은 현재에도 독립운동가들의 발굴은 계속하고 있으나 여성독립운동가만 발굴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발굴하다 보니 숫자는 늘어나지만 비율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앞으로 공훈 요건에 맞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더 발굴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선양하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다.

• 참고문헌 •

정정화의 『장강일기』, 김구의 『백범일지』, 3.1문화재단의 『3.1운동 새로 읽기』, 지복영의 『민들레의 비상』, 3.1 여성동지회의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사편찬위원회 참조